

2022년 새해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평안을 전합니다.

도시 교회의 성탄절

첫해 성탄절은 시골 원주민 교회에서 보냈었는데 이번 성탄절은 평소 저희가 출석하던 베이따 장로교회 교우들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격리 해제 되는 바로 그날(19일)에 드리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주보에 저희 기도제목을 올려놓고 중보해준 교우들과 반가운 만남을 갖고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 깊이 느끼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상깊었던 것은 대만교회에는 새벽송의 전통을 계승한 ‘報佳音’(좋은 소식을 전함)이라는 활동이 남아있는데 오후나 저녁에 노방에서 혹은 성도의 집 앞에서 캐롤을 부르며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우의 집을 방문하여 캐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도들이 와서 캐롤을 불러주어 준비한 다과와 선물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한국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예전의 새벽송 기억을 떠올리며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협력 목회

새해부터 三星교회와 愛心福音堂 두 교회를 도와 협력목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삼성교회는 원주민 전도를 지향하는 교회이고 사랑복음교회는 객가(客家)인 전도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대만은 인구 구성이 복잡하여 대만어를 쓰는 대만인을 원주민과 구별할 때는 ‘평지인’이라 칭하고 공산혁명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구별할 때는 ‘본토인(本省人)’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방의 유대인’이라 불리는 객가족은 원주민에 해당되지 않고 대만 본토인과 외관상 차별이 없어 보이지만 본토인과는 미묘한 벽을 느끼고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민진당과 국민당을 지지하는 국민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본토인(本省人)과 외지인(外省人)’이라는 태생적인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갈등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삼성(三星) 교회

1/7-10일 삼성교회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척교회의 애로사항과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준비한 주일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산동네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교회에 오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40분 정도 내려와야 하고 농사일로 바쁘기에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온 한 자매를 통해 꿈에 외국인 목사부부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그날 예배에 참석하여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담당 목사님과 저희 모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의 증조부가 목사님이었는데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 형제는 심한 약물중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목사님 부부가 20여년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데 하모니카를 곧잘 불었습니다. 오 선교사가 그를 권해서 특순을 하게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하였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다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명이 모여 드린 그날 예배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주님의 12제자가 드린 예배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 복음 교회 (愛心福音堂)

담임 전도사님과 1/5일에 저희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월부터는 매월 1회 1박2일 일정으로 토요일에 심방하고 주일에 설교하기로 하였습니다. 1/16일 주일에는 말씀 전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교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 싱글맘인 장 자매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면서 전도사님이 싸 주시는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예배 끝날 때쯤 오곤 했는데 그날은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 들어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발이 기경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라 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성탄절 때 전도집회를 하였는데 11명의 태신자가 참석하여 7명이 영접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지난 주일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교인을 만들기보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씨를 뿌리는 단계라 찾아가는 목회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대만 교회를 꿈꾸며

대만 교회에 지난 30여년 간 한국교회의 선교가 끼친 영향이 매우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교회는 성장이 매우 저조합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오히려 대만이 방역 모범국으로 부상하면서 선교사들과 국내 기독교 지도자들간에 연합과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전 기도부흥운동(RPG)이 일어나 복음



온라인으로 3천명이상 참석한 선교세미나

주의 교회들이 기도 소그룹을 통해 갱신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드슨 테일러의 5대손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가 원장으로 있는 중화복음신학원에서 한국의 선교를 배우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3천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및 선교 기관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진솔한 토론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선교를 배우되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만 교회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타문화 선교의 사명을 절감하고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성령의 인도가 느껴져 소망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대만 교회안에 선교의 불씨가 일어나는 때에 저희의 중국 선교 경험을 담은 문서와 메시지가 대만 교회와 신학교에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협력목회; 매월 한 주 설교와 심방으로 두 곳의 개척교회를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소서.
2.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출판; 2차 교정과 추천서 의뢰, 출판사 연결이 잘 이뤄지게 하소서.
3. 선교하는 대만교회를 세우는 데에 문서와 설교, 멘토링을 통해 참여하게 하소서.

2022.1. 24. 항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